

발음 인식을 통한 영어 듣기 및 읽기 지도

이 경 미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Teaching listening and reading through the awareness of pronunciation

Kyungmi Le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 kmlee57@hanmail.net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teaching of listening and reading skills through enhancing the awareness of pronunciation. First, it examines the problems which take place i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seeks the ways in which we can teach the skill rather than simply practise it. The approaches proposed are based on micro-listening exercises which practise individual subskills of listening, especially by using the cloze test and tracking. The issue of using authentic materials is then examined for teaching recognition of the features of natural speech. Finally, it is argued that classroom activities need to take account of the true nature of real-life L2 listening.

I. 서론

듣기는 단지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이며 능동적 과정이다. 다시 말해 청자가 소리들을 구별하고 어휘와 문법구조를 이해하며 강세와 억양을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합 유지하여 발화의 맥락 내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듣기 과정이다. 청자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데에는 많은 정신적 활동이 요구되므로 듣기는 힘든 과업이며 보다 많은 분석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듣기가 언어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수방법에도 우선 순위를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듣기 수업에서는 단순히 학습자의 경험을 또 하나 추가해 줄 뿐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연습을 제공해주는 하나 세부 기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Brown 1986, Sheerin 1987). 학습자들 중에는 듣기 능력이 잘 향상되지 않는 취약한 청자들이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의미를 추출해 내는데 실패할 경우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데, 교사가 계속적으로 복잡한 내용의 자료를 제시할 때 이러한 학습자들은 단순히 위축되며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만약 학습자가 특별한 과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교재가 아무리 흥미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심리적 위축을 일으킬 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습자가 교재의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 난점들은 교재의 언어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고려될 뿐 듣기 과정 중에서 어떤 잘못이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내용이해 접근 방식에 의하면 듣기나 읽기의 성공여부는 질문이나 과제에 대한 정확한 반응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교사는 듣기나 읽기 자체보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Field 1998).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 그 자체보다는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보다 더 쉽고 체계적인 것이 되도록 세부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원리화된 방식이다. 특히 직독 직해가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 듣기 능력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소리에 대한 자신

감이 부족하고 내향적이며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았다.

한편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 유용한지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듣기 연습과 함께 리듬과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과 발음의 연습 등을 가르쳤을 때 주목할 만한 차이를 얻게 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집중적인 독해 훈련이 시작되는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소리를 내거나 듣지 않고 글자만을 통한 독해훈련이 주를 이루다 보니 읽는 것과 듣는 것, 의미파악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상황과 동떨어진 대화 연습을 기피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다. EFL 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발음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발음을 소홀히 여기고 관심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의 발음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독해 능력의 발달은 청해 능력의 발달을 전제로 하며, 청해 능력의 발달과 동시에 독해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소리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점차 소리말의 흐름을 따라잡고 의미와 연결함으로써 리듬과 억양 단위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자가 직면하게 되는 소리 지각상의 장애요인들을 발견하고 소리와 의미가 모국어의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인식되도록 체계적으로 듣기와 읽기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L 상황에서 발음지도가 왜 필요한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단계별로 혹은 수준별로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발음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독해와 청해 지도 속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II. 발음지도의 필요성

발음의 역할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청화식 교수법에서는 주요 초점이 되었으나 주로 발음의 전통적 개념인 최소 대립어 연습이나 짧은 대화에 대한 관심에 지나지 않았다(Castillo, 1990:3). 발음 수업에서 주요 관심은 음소, 환경적 변이음과 함께 강세, 리듬, 억양을 가르치는 일로서(Morley, 1991:484), 60년대 말에서 70년대의 ESL/EFL 교육과정에 발음 교육은 기계적이고 의사소통과 무관한 연습이 주를 이루었으며 발음교육과 발음

능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Suter and Purcell¹⁾, 1980:286).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발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의사소통적 언어 프로그램에서 초분절음을 지도하는 것이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어느 특정한 언어 능력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발음과 구어의 통합으로의 전환과 기계적인 연습에서 유의미하고 의사소통적인 과제에 기초한 연습으로의 전환은 교수 학습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음소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연습하는 것으로는 의사소통상의 이해가능성을 위해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확한 발음보다는 이해가능한 발음(intelligible pronunciation)이 의사소통 능력의 필수요소이며 교사는 각 과정에서 발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Morley, 1991). 적절한 발음 능력 없이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이 심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의 발음에 대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해 능력과 발음은 상호의존적이며, 언어표현은 발음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청자는 의사소통담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Gilbert, 1984), 이것은 발음을 의사소통활동과 통합하여 듣기와 말하기에 의해서 발음을 발전시키는 상황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발음은 반드시 따로 분리하여 가르칠 것이 아니라 소리말과 관련된 부분과 통합하여 가르칠 때 의사소통능력을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발음 교육의 목표는 완벽한 발음보다는 기능적인 이해가능성, 의사소통가능성, 자신감의 증가, 소리말 모니터 능력, 소리말 교정 전략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Morley, 1991). 학습자는 발음 인식 및 모니터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실 밖 실제 상황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의사소통적 학습 프로그램에서 발음 코치(speech coach, or pronunciation coach)로서 학습자의 발음을 단순히 바로잡아주기 보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시범을 보여주며 건설적인 피드백과 제안을 해주며 높은 수준을 설정해주고 다양한 연습 기회를 제공하며 격려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

최근 발음지도의 핵심은 수업중 학생들의 발음에 대한 자각을 높임으로써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상위인 지적 전략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정서적 요소가 발음 훈련 및 지도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이다. Morley(1994)는 발음 지도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지도 프로그램을

1 이들은 수업 중 발음연습이 학습자의 발음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정확한 발음에 도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언어형태와 기능 뿐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학습전략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하며 자신의 말소리를 모니터하고 교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²⁾. 과정의 내용은 의사소통 수업과 통합되어야 하며 듣기와 발음을 연결하고 유의미한 발음 연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³⁾. 특히 능동적인 듣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듣고 동시에 따라하는 전략(listening and mirroring⁴⁾)이 중요한데, 이는 듣기능력과 표현능력사이의 관계를 실현시켜준다; 즉, 발음근육을 발달시켜주며 동시에 청해 능력을 자극한다. 발음이란 물리적이며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소리 말 요소로서 자신감을 나타내므로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며,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감 있는 화자로 변신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듣기과정

듣기 과정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20년 이상 동안 언어교육을 지배해 왔다. 즉 상향식처리 과정과 하향식 해석 과정이 그것이다. 상향식 처리 모형은 순서대로 들리는 소리를 해독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하여 이러한 재구조 즉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청자는 문맥에 대한 선행지식을 사용하며 그 한계 내에서 청해가 일어난다. 엄격한 상향식 접근의 부적절성은 청해가 상향식 접근에 의해 제안된 대로 듣기 자료의 단어 하나 하나를 저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연구에 의해 설명되었다. 교재를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대로 적도록 하는 실험에서 청자는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며 또한 종종 원래의 교재에는 없는 어떤 것을 추가하기도 한다. 더구나 성공적으로 기억한 것들도 원래 메시지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들로 기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Nunan 1999).

2 Pennington(1992)은 반영적 연습(reflective practice)이 교실 훈련을 심화시키고 학습자의 동기와 자신감을 개발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특히 학습자 스스로 발음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자신의 발음을 듣고 학습을 인지하며, 지도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가장 가치있다고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발음지도 전략과 요소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준다.

3 발음 향상은 직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감을 더해주고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많은 학생들은 초분절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말소리의 음조가 너무 밋밋하고 변화가 없음을 깨닫고 의미단위로 나누는 방식을 알게 되고 문장을 읽을 때 어디서 강조하고 음조가 올라가고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4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기 : mirroring, shadowing, tracking

이러한 청해과정은 최소대립어를 구별하는 능력과 같은 상향식 처리 기술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이 들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 또한 중요함을 제안해 준다. 만약 교사들이 문법 혹은 어휘에 관한 학습자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듣기 그 자체는 내용이나 스키마 형성 활동 다음으로 미루어 질 수 있다. 한편 만약 학생들이 발음 특히 연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연음에서 단어들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자는 교재의 내용이 아무리 흥미로운 것이라고 해도 교재를 여는 열쇠를 전혀 지니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청자에게 더 많은 듣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실패감을 더해 줄 뿐이다. 이와 반대로 학습자가 보다 많은 듣기 자료를 성공적으로 이해했다면 이때 학습자는 전략이 세부기술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적 발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제 2 언어 학습자들은 두 부류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의미신호를 거의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의미에 대한 가설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험형과 두 번째는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에 기초적인 상향식 증거를 많이 요구하는 모험회피형이다. 전략 훈련을 통해 교사들은 모험회피형의 경우에는 더 많은 모험을 하도록 격려하고 모험형은 보다 더 신중하게 나아가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작용적 보충가설에 따르면(Stanovich 1980), 우리가 상향식 교재의 단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과 하향식에 의해 문맥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끌어내는 정도 사이의 상호 교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독이 어려울 때 독자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문맥에 의해 보충한다. 문제를 해독하는 것은 전략사용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략 사용을 강화하여 해독작용을 대신하게 된다. 이 가설은 청해가 이해에 있어서 독해보다 더 간격이 크기 때문에 독해보다는 청해에 훨씬 더 적절하다. 다시 말해 L2의 제한된 지식이나 제한된 듣기 기술 때문에 청해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교재 내용 중 놓쳐버린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 청자가 전략 기술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다.

과정 중심의 관점에 의하면 잘못된 대답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습자의 숫자에 의해 이해도를 측정하는 대신 교사는 어디에서 이해가 중단되었으며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틀린 반응을 찾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단 절차 및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이해를 측정하고 평가할 뿐 제대로 가르칠 수는 없다. 교사는 성공적이지 못한 청자에 의해 명시된 행동의 특별한 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청해 능력을 향상시켜줄 연습문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Brown 1986).

IV. 발음인식을 통한 듣기지도

4.1. 듣기의 장애 요인

청해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Brown & Yule 1983).

- 화자 요인: 화자의 수, 말의 속도, 말씨
- 청자요인; 청자의 역할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단계의 반응이 요구되는가, 소리와 연음에 얼마나 익숙한가
- 내용; 문법, 어휘, 구조 정보는 얼마나 복잡한가, 어떤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가
- 보충자료; 얼마나 많은 보충자료가 제공되는가 그림이나 시각 자료, 도표등

EFL 상황에서 청자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 입장에서 화자 요소를 바꾸기는 어려우나 청자 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소리, 혹은 속도, 연음된 소리에 대한 적응을 통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실상 기술로서의 듣기는 듣기 수업에서 언어 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해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이때 형식적인 연습문제보다는 여러 과제를 지닌 실생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자는 교재에서 듣게 될 것에 대해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들은 것과 비교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과 과제를 미리 제시한다면 청자는 듣기 목적에 관해 분명한 태도를 지니게 되고 기억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음은 읽기 교재를 이용한 듣기수업에서 학생들의 오류 현황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1. Koreans are book-loving people. (folk-loving)
2. Old scholars read books even under the glow of fireflies. (red)
3. While in prison, An Chung-gun left a famous calligraphy, (무응답)
4. saying that if you stop reading for a day, (다수 정답)
5. people who have a great respect for learning through reading. (running) (무응답)
6. the way to learn and build personality (run) (bill)

7. "By breadth of reading and the ties of courtesy a gentleman will keep from error's path." (다수 정답)
8. Everybody takes it for granted that reading is indispensable for modern life. (grant)
9. but others more than just the lines. (무응답)
10. to get the most out of what you read. (무응답)
11.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write between the lines." (right)
12. Unless you do this, you're not likely to do the most efficient kind of reading. (less/ at last) (efficient)

장애요인 분석

1. 들으면서 의미 파악이 잘 안된 경우에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로 듣게 된다.
2. 연음된 단어들의 경우 대부분 잘 알아듣지 못한다.
3. 강세없이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굴절어미나 기능어 등에 대한 정확도는 극히 낮다
4. 내재화되지 않은 단어는 거의 못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어 듣는다.
5. 연음되지 않거나 선행학습을 통해 스키마가 형성된 경우는 대부분 잘 알아듣는다.

4.2 듣기지도 방법

청해 수업에 사용되는 연습문제의 대부분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독해 수업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유형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년대에 새로운 유형은 단지 분절음과 단어 강세, 억양의미를 해독하는 것과 관련된 것뿐이었으며 70년대의 의사소통교수법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는 구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구어가 문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구어는 일단 말로 구현되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받은 학생들, 혹은 외국인을 위해 천천히 말하도록 녹음된 테이프에 혹은 단지 소리구별 연습에 익숙한 학생들은 보통 원어민이 정상속도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70년대 후반에 청해지도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맥락 개념으로서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습득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분절음을 따로 떼어내어 연습하기보다는 정상 속도의 자연스런 언어를 포함하는 연습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학생들이 직면하는 분절음의 문제 혹은 단어 강세, 억양 등의 문제가 하

나의 작은 단위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교사는 음운 단위 내에서 그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맥락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진정성을 지닌 자료를 사용하는 듣기 훈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실생활이 그대로 반영된 진정성 자료는 머뭇거리거나 어색한 시작, 많은 휴지 등의 실례를 제공하며 이는 목표어의 실제 리듬,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재보다는 과제를 등급화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실생활이 반영된 듣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과제와 함께 듣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학습자가 언어의 많은 부분이 지식의 현 상태를 넘는 경우에 발화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교실 연구에서 보듯이 연습이 되는 경우에 중간 단계의 학습자들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단어들조차 75% 이상 알아듣지 못했다. 적절한 상향식 정보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L2 청자들은 추론을 형성하는데 **지적인 추측을 위해 문맥에 의거한 지식을 사용한다.** 언어 교사가 할 일은 L1에서 사용되는 추론 전략이 L2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발음에 대한 자각을 높임으로써 청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빈칸 채우기(cloze test)
- 듣고 동시에 따라하기(tracking)⁵⁾
- 받아쓰기(dictation)

4.3 듣기지도 유형

4.3.1 노래를 이용한 선택적 듣기

어휘와 의미에 집중하여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선택적 듣기 활동을 제공한다. 새로운 어휘의 발음과 의미 혹은 중심 단어의 인지 및 의미파악을 위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인식하는 훈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래를 사용하여 빈칸 채우기를 만들 경우에 중요한 점은 빈칸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노래 한 소절에 빈칸이 하나 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노래가 반쯤 끝날 때 첫 두 개의 빈칸을 채우는 학생들이 대부분임을 고려해 볼 때 첫 소절에 빈칸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래가사

5 Acton(1984)은 들으면서 단어 하나 하나를 즉각적으로 따라하는 시도를 할 때 밀도 있는 언어 경험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는 억양과 강세, 리듬에 초점을 두게 되고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언어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는 연습이나 융합 활동에 잘 사용될 수 있다. 비원어민 화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문장 내의 단어 하나 하나를 분명히 발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주 느린 말씨에서는 그러한 발음 습관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런 말씨에서는 아주 빠르게 말해지므로 학생들은 어떻게 연습(linking)되고 융합(blending)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⁶⁾.

1) 듣기-전 활동(Pre-listening):

빈칸 채우기 교재를 나누어준 후 5분 정도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배경지식 등에 대해 묻고 답하거나 빈칸의 내용을 추측하며 교재를 소리내어 읽어보는 등 여러 방식으로 점검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며, 노래의 경우 전체를 한번 들어 봄으로써 흥미를 끌 수 있다.

2) 듣기 활동(While-listening):

학생들은 들으면서 내용 파악에 초점을 두고 빈칸을 채우도록 하되 학습자가 다시 듣기 원하면 여러 번 듣고 가능하면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도록 지도한다.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면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억양과 리듬, 발음에 대한 자각을 높여주어 전체 맥락과 속도에 익숙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3) 듣기-후 활동(Post-listening):

들은 후 답을 확인하고 몇몇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음운적 설명과 관용적 표현, 문법적 설명을 보충해주며, 학습자의 듣기 기술 중 부족한 점을 검토하고 짧은 세부항목 듣기 연습을 제공한다.

세부항목 듣기 연습은 이해가 중단되는 원인을 진단⁷⁾하도록 도와주며 발음에 대한 예민한 자각을 갖게 해준다. 이를 위해 교사는 5-10분을 따로 할애하여 연습시키되 듣기의 어려움을 단순히 유형별로 분류한 일련의 짧은 문장 받아쓰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수업 목적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며, 듣기후 받아쓰기 연습은 음운론적 의미단위 혹은 통사적 단위의 문제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다.

- 6 연습의 예: 자음과 모음 사이의 연습 - pick up, pump it,
모음과 모음 사이의 연습 - see us, do I
융합의 예: 자음과 자음 사이의 융합 - bus stop, hot tea,
bestseller

7 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세 단어와 강세없는 단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정보의 가장 중요한 내용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동화, 탈락 등의 연습 규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가?

표 1. 팝송 듣기

Student Worksheet

Pop Song Listening

1. Listen to the pop song and fill in the blanks.
 I cried the tear. / You wiped it dry. / I was confused. / You cleared my mind. /
 I sold my soul. / You bought it back for me, / and held me up / and gave me dignity. /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 to stand alone again, / to face the world / out i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 upon a pedestal, /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
 You needed me. / you needed me. /

2. Listen to the song again and fill the missing words where the linking occurs
 I cried the tear. / You wiped it dry. / I was confused. / You cleared my mind. /
 I sold my soul. / You bought it back for me, / and held me up / and gave me dignity. /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 to stand alone again, / to face the world / out i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 upon a pedestal, /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
 You needed me. / you needed me. /

4.3.2 읽기 교재를 이용한 듣기

교과서의 독해 본문을 소리내서 읽음과 동시에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을 위해서는 교재를 들고 빈칸을 채우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리가 없는 읽기란 불가능하므로 소리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소리와 의미가 동시에 연결되는 수준에서 독해가 가능하므로 독해의 선행학습으로 듣고 빈칸채우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용을 채우는 훈련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청해능력 뿐 아니라 속독 능력도 알 수 있으며, 문법적인 기능어의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표 2. 교과서 읽기 본문 듣기

Student Worksheet

10과 On efficient Reading

<1> P. 174

Autumn in Korea is "the season for reading." Koreans are _____ people. Old scholars _____ books even under the glow of fireflies.

_____ prison, An Chung-gun _____ a famous calligraphy, saying that if you _____ for a day, you will have thorns in your mouth. Indeed, Koreans are people who have a great respect for _____.

_____ Reading is the way to _____ and _____ personality. Confucius, for example, said, "By breadth of reading and the ties of _____ a gentleman will _____ from error's path."

Everybody takes it for _____ that reading is _____ for modern life. But how do you think people read books? Some may read just the lines in the book, but others _____ just the lines. This means "reading _____ the lines" to get the most _____ what you read.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_____ between the lines." _____ you do this, you're not likely to do the most _____ kind of reading.

< New Words >

glow firefly calligraphy
 thorn personality
 Confucius breadth = width efficient

★ keep from -ing: <...하는 것을> 삼가다, 자제하다 (restrain oneself; hold oneself back)

I couldn't keep from snickering. 킬킬거리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 take ~ for granted :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1) ...을 당연한 것이라고[의심할 여지가 없다] 생각하다.

· I take it for granted that people are honest. 나는 인간이란 의당 정직한 것으로 안다.

(2) <소유물·권리 등을> 당연한 것으로[예사로] 알고 소홀히 하다.

· take modern conveniences for granted
(현대의 편리한 설비 등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다[고마운 생각을 잊어버리다].)

★ indispensable (…에) 불가결의, 절대 필요한, 필수, 없어서는 안될<to, for …>

= necessary (goods indispensable to city life 도시 생활의 필수품.)

1. Translate into English ; 一日不讀書口中生荆棘

2. What do you have to do for effective reading?

4.3.3 세부기술 연습유형

듣기 연습은 각각의 세부 기술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일단 연습이 이루어지면 세부 기술은 서로 연결되어 듣기 과제 자료에 적용된다. 주된 고려 사항은 적절성 문제로서 자연스럽게 본문의 유형에 적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재 작성자가 적절한 연습 유형이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수 요목을 고안함으로써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가 세부 기술 지도를 연습 속에 통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교재가 세부기술 접근에 대해 산발적인 제목에만 의존할 뿐이고 이러한 듣기 유형을 구성하는 체계적인 연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듣기 세부 기술을 연습하기 위한 교재는 주로 받아쓰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듣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며 검증된 것이다. 연습유형⁸⁾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Ur 1984).

1. 소리구별하기: 최소대립어 구별하기
 - 단어 및 최소대립어 듣고 따라하기

8 더 많은 지침은 Rost(1990)의 인지, 해석, 정보전달에 대한 세부 기술 분류에서 제공된다.

- 단어 및 최소대립어 받아쓰기

2. 단어 확인하기: 음운단위로 나누고 단어 확인하기

- 내용어를 중심으로 빈칸 채우기
- 기능어 추론하여 빈칸 채우기
- 축약형, 기능어, 동화, 접어 등을 듣고 받아쓰기

(예 'drinks pinta milk')

- 교재를 보면서 듣기
- 교재를 보면서 따라하기
- 교재없이 듣고 따라하기

3. 선택적 듣기: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듣기⁹⁾

-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하기보다는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듣고 빈 칸 채우기

4. 전체듣기: 교재 전체의 중심 내용 듣기

- 듣고 요약된 내용 찾기
- 듣고 질문에 답하기
- 표 완성하기

표3. 세부기술연습 듣기

Student Worksheet

연음 연습(linking)

■ Listen to the tape and fill in the blanks.

1. John joined our school's speed-reading class.
2. I'll finish it in about an hour.
3. The man was arrested yesterday.
4. I gaze at them in amazement.
5. How about a drink?
6. He gave us an assignment.
7. Minors are not allowed in this store.
8.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 Listen and fill in the blanks with flapped /t/, /d/

1. Who was the 1995 Nobel Prize Winner in literature?
2. Let's settle the problem at once.
3. This is a bottle of vitamins.
4.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city of Ottawa?
5. A class of small boys had been making a lot of noise.

9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의사소통 하는데 효과적이다. (예; 내용을 듣고 질문에 맞는 숫자 쓰기)

6. I've got to go right now.
7. We have to get our tickets today.
8. Let's call it a day.

■ Listen and fill in the blanks paying attention to the deleted pronunciation.

1. Last Sunday, I met her at a park.
2. There is a library in front of the tower.
3. Tell me a nice story, Father?
4.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Saturday.
5. I haven't heard from her recently.
6. Since civilization began, it has been regarded as a symbol of power.
7. Reading is the way to learn and build personality.
8. Did you read this bestseller?
9. Your homework will have a lot of mistakes.
10. A lad gis his seat to an elder he doesn't know.

V. 결론

듣기전략 뿐 아니라 듣기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입력을 이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듣기 기술과 전략은 그들이 보다 믿을 수 있고 좌절감을 완화시켜주는 언어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여기서 제안한 해결책은 여러 유형의 세부기술 연습을 특징으로 하며 빈칸채우기와 듣고 동시에 따라하기를 통해 듣기 훈련의 일부로서 예측적, 혹은 진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습을 통해 교사는 원어민이라면 지니게 되는 세부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준비시키고, 나아가 학습자에게 자연스런 언어가 갖는 자질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작은 의미단위 내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을 세부적인 전략 기법으로 학습자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술을 따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더 긴 자료의 이해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추론을 포함하는 주된 듣기 전략은 개별적으로보다는 듣기 유형 속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습득되어야 하며, 특히 듣기수업이 보다 더 흥미롭고 유용하며 동기 유발이 되도록 실생활 그대로의 진정성 교재를 언어학습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듣기 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평가 밖에서 듣기 연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때 가장 잘 개발될 수 있다. 교사들이 듣기 활동을 단지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듣기 기술 습득에 바람직한 맥락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단지 불안과 염려를 일으킬 뿐이므로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의 필요와 관련하여 듣기 과제를 개발하고 등급화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Anderson, A. & T. Linch. (1988). *Liste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G. (1987). 'Twenty-five Years of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English Teaching Forum*.
- Blau, E. K. (1990). 'The Effect of Syntax, Speed, and paus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24: 746-53
- Dunkel, P. (1991). 'Listening in the Native and Second/Foreign Language: Toward an Integration of Research and Practice'. *TESOL Quarterly*, 25(3), 431-457.
-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eld, J. (1998) 'Skills and strategies: towards a new methodology for listening'. *ELT Journal* 52/2.
- Field, J.(2000) 'Not waving but drowning: a reply to Tony Ridgway'. *ELT Journal* 54/2.
- Gilbert, J. (1995) Pronunciation Practices as an Aid to Listening Comprehension. In D.J. Mendelson and J. Rubin ed. *A Guide for the Teaching of Second Language Listening*. pp. 97-112. San Diego: Dominic Press.
- Morley, J. (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in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 Morley, J. (1991) 'Oral Communication in TESOL: Integrating Speaking, Listening and Pronunciation' *TESOL Quarterly*, 25(3), 51-75.
- Nunan, D. (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 Learning*. Boston: Heinle & Heinle.
- Oxford, R.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New York: Newbury House.
- Pennington, M.C. (1994). Recent Research in L2 Phonology: Implications for Practice. In J. Morley (Ed.) *Pronunciation Pedagogy and*

Theory: New Views, New Directions.
Alexandria, VA: TESOL Publications.

Rost, M. (1990). *Listening in Language Learning*.
Harlow: Longman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London
and New York: Longman.

Ur, P. (198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Yule, G., Hoffman, P., Damico, J. (1987). Paying attention
to pronunciation: The role of self-monitoring in
perception. *TESOL Quarterly*, 21(2), pp. 765-768.